

도서발굴단 추천도서

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?
#무채색레드벨벳 #디카페인유자차 #아무진세미집순이 #휘귀친구마라탕이 추천합니다.

글. 고양시 도서관센터

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



니지와키 순지 | 더퀘스트

스스로 예민한가 예민하지 아니한가를 고민하지 말고 이 책을 펴보자. 작가의 말처럼 덮어놓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내가 오를 길을 10단으로 나누어 올라가자. 원래 인간의 수명은 30~40년이었다는데 나는 거의 주어진 내 수명만큼 살았으니 앞으로의 길은 조금 더 쪼개서 오늘의 행복, 오늘의 TO-DO-LIST를 위해 살아봐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는 나를 만날 수도 있다. 이 책이 당신 마음의 '예민보스'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!
#무채색레드벨벳

책속한줄

“고작 0.1퍼센트로 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어렵다. 하지만 사실은 조용히, 게다가 가속도를 붙여가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.”

이토록 멋진 휴식



존 피치 | 현대지성

게으름의 다른 말은 휴식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휴식을 해왔는데 “여태껏 네가 했던 것은 휴식이 아니었어, 너의 휴식은 ‘침윤리’가 부재중인 게으름이야”라고 말하는 걸 들어버렸다. 어떻게 휴식을 잘할 수 있는지, 휴식이 창의성과 어떻게 직결되는 문제인지 알 수 있다. 세계적인 사람들이 휴식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, 휴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읽다 보면 우리도 워라밸 천재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. #디카페인유자차

책속한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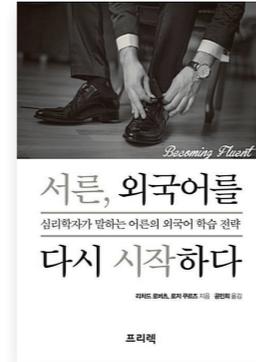
“길을 잃는 것, 그래서 다소 불편함을 겪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경험이다. 그래야 성장하고 발견할 수 있다. 그래야 경외하고 감탄할 여지가 생긴다. 그래야 강력한 창의적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.”

도서발굴단이란?

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.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.



서른, 외국어를 다시 시작하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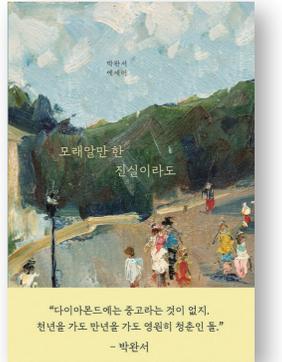
리처드 로버츠, 로저 쿠르즈 | 프리렉

굳은 결심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공부를 덜 하는 것은 아닌지, 늦게 시작한 만큼 외국어 수업을 추가로 더 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. 필자와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, 이 책을 무조건 펴볼 것! 첫 장부터 “내 얘기잖아!”라는 생각이 바로 들 것이고, 지지부진하던 외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.
#휘귀친구마라탕

책속한줄

“삶의 경험이 언어 학습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그 보답으로 학습이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.”

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



박완서 | 세계사

글쓰기에 대한 방법론들이 여럿 있지만, 듣고 있다면 각자 꿈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의 교집합은 타인에 대한 사랑, 관심이라고 생각해왔다. 와닿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쥐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. 자신의 내면을 고스란히 내보이고,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정직하고 따스한 글이었다. 작은 모래알을 모아 한 사람을 만들고,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이 고여 있는 책이다. #아무진세미집순이

책속한줄

“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는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귀염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. 그게 이른 새벽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.”